<要 約>

1. 現況

○ **(發端)**중국 중앙 정부는 지난 2월 16일 北京 首都鋼鐵의 周冠五 부자에 대한 비리 조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착수함.
○ **(調査 範圍 및 對象)**지역적으로는 北京市를 비롯한 전국을 범위로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고위직은 물론이고 일부 "太子黨"까지 포함되고 있음.

2. 最近 事件들의 意味

○ **(政治的인 意味)**최근 사건으로 공산당내 江澤民의 권력 기반이 확대됨과 동시에 반대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 역시 제공하고 있음.
○ **(成果)**일부 고위층과 "太子黨"에 대한 숙청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江澤民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
○ **(地方과의 關係)**北京市에 대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각종 정책에 異見을 보여왔던 지방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음.
○ **(鄧小平과의 關係)**江澤民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신이 鄧小平과는 다른 성향의 지도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3. 現存 黨內 主要 派閥 分析

○ **(派閥 分類 基準)**중국 공산당내 인맥을 파악하려면, 우선 「國家 槪念」보다는 「地域 槪念」을, 「地域 槪念」보다는 「血緣 槪念」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속성을 파악·적용해야 할 것임.
○ **(派閥 現況)**현재 당내 최대 파벌은 上海派와 山東派이며, 이외에 北京派, 分權改革派 등이 있음.

4. 政治 情勢 展望

○ **(評價)**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鄧死後 안정된 후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며, 당지도층내 공감대(혹은 묵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留意 事項)**이번 조치를 鄧小平에 대한 격하 운동 또는 당내 권력 투쟁의 본격화라고 보는 일부 언론의 시각은 성급한 분석임.
○ **(展望)**향후 중국 공산당내 保守派 혹은 改革派와 같은 구분은 점차 그 의미가 줄어들고 지역에 근거한 파벌이 부각될 것임.

5. 示唆點 및 對應 方向

○ **(影響)**우리 기업의 對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일부 무분별한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 심리적인 위축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人脈의 活用 方案)**한 파벌과의 관계에만 치중하지 말고 각 파벌 및 지역별로 다각적인 인맥 관리가 필요함.
○ **(對應 方案)**향후 중국의 경제 질서 확립 추세에 대비, 기업의 對中 활동도 점차 "正常的인 節次"를 主로 하고 "人脈 活用"을 副로 하는 접근 전략을 구사해야 함.

1. 現況

ㅇ (發端)中國 中央 政府는 지난 2월 16일 北京 首都鐵鋼의 周冠五 부자에 대한 비리 조사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운동에 착수함.
ㅇ (調査 範圍)지역적으로는 北京를 비롯한 전국을 범위로 하고 있으며, 그 對象은 고위직은 물론이고 일부 "太子黨"까지 포함되고 있음.
ㅇ (進行 狀況)陳希同 北京市 黨書記 제거와 함께 上海派 혹은 同調 勢力 인사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함으로써 당내 권력 투쟁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

- 지난 2월 16일 북경 首都鐵鋼 周冠五·周北方 부자의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3월 陳希同 북경시 당서기를 비롯한 시고위층에 대한 비리 조사에 착수함.
- 상술한 조치에 따라 신임 북경시 당서기로 임명된 尉健行을 책임자로 한 부패 조사 특별팀이 구성돼 시정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조사팀은 지난 4월 30일 市計劃委員會와 對外貿易經濟委員會, 建設委員會 등 경제 관련 부서와 市公安局, 國家安全局에 파견돼 시관리들을 수사·구금 권한과 함께 일부 부서내 일상 업무 감독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알려짐.
- 당초 숙청 대상이었던 李其炎 市長과 張百發 常務 副市長은 元老들의 도움으로 활동은 하고 있으나, 그 영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편 숙청 대상은 북경시 고위층을 비롯한 각 지방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며, 특기할 사실은 元老 및 전·현직 고위층의 자제들로 구성된 "太子黨"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점임.
- 이번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上海派를 중심으로 하되 그 同調 勢力이 협력·방조하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江澤民 중심의 上海派에 대해 萬里, 薄一波 등 핵심 元老들과 일부 지방의 연합 세력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당내에 권력 투쟁 조짐이 감지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黨中央紀律檢查委員會는 각 省·市에서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전 반드시 상급 당기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 이같은 조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야기된 對內·外的인 파장 수습과 당내부 반대 세력들에 의한 견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2. 最近 事件들의 意味

ㅇ (政治的인 意味)최근 사건들을 통해 黨內 江澤民의 권력 기반이 확대됨. 그러나 반대 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 역시 제공하고 있음.
ㅇ (成果)일부 고위층과 "太子黨"에 대한 숙청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짐으로써 江澤民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
ㅇ (地方과의 關係)北京市에 대한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각종 정책에 異見을 보여왔던 지방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볼 수 있음.
ㅇ (鄧과의 關係)江澤民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신이 鄧小平과는 다른 성향의 지도자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음.

ㅇ 黨內 權力 鬪爭 可能性

- 鄧小平의 사망 임박과 함께 중국 공산당내 권력 투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 북경시 인사들에 대한 숙청 사건임. 이 사건은 부정부패 일소라는 명분과 권력 장악이라는 실속이 내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上海派와 北京派간에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중국 공산당내 北京派와 上海派는 당내 권력 투쟁시 두각을 나타내 왔음. 특히 文化大革命(1966-1976) 기간중 당시 江淸을 비롯한 좌파 세력의 기반이었던 上海派에 의해 北京派가 핍박을 당한 경험이 있음.
- 그러나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上海派는 개혁파의 대명사로 보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北京派에 대해 숙청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권력 투쟁의 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文化大革命 당시 兩派閥간 투쟁 경력에서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은 예상할 수 있음.

ㅇ 江澤民의 이미지 提高

- 부정부패 문제는 1989년 6·4천안문 사건 발단의 중요 원인중의 하나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현상임. 특히 元老 혹은 전·현직 고위층의 자제들로 구성된 "太子黨"에 의한 비리는 인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 따라서 江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부패 일소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지도자로서 입지 제고를 위한 좋은 구실이 되고 있음.

- 지금까지 北京派 세력은 도시 건설과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좋은 평판을 얻으며 鄧小平 등 元老 그룹의 지지를 받아 개혁·개방 정책을 빌미로 경제적으로는 공공연히 중앙 정부의 법과 규율을 위반해 왔음.
-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중앙 정부를 자극한 것은 20억 달러가 소요되는 "東方廣場" 신축과 관련된 문제임.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투자는 반드시 國務院 산하 國家計劃委員會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북경시가 임의로 허가를 내준 사실임(이 과정중 뇌물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
- 그동안 북경시 고위층들이 도시 개발과 관련되어 각종 이권에 깊숙히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왔음.
- 이 사건에는 鄧小平의 아들 鄧質方과 홍콩 재벌 李嘉誠(리카싱)이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자리에 자리잡고 있던 맥도날드 북경점에 불이익이 가해짐으로써 사태가 국내외로 확대됨.
- 결국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중앙 정부와 북경시 정부간의 알력은 중앙 정부에 의한 부정부패 척결로 연결되었으며, 이러한 행동에는 차기 지도자로서 江澤民의 참신하고 강력한 이미지 제고에도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上海派 및 同調 勢力의 權力 基盤 擴大

- 尉建行 북경시 당서기의 임명으로 중국 전역에 뿌리내린 부정 부패의 척결 작업이 북경시 치안 책임자인 공안 국장을 상해 출신의 양장기로 교체하는 등 江澤民 총서기 후계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최근 고위 및 하급 관리들에 대한 체포는 江澤民의 심복인 上海派 출신의 인민무장경찰 사령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알려짐.
- 鄧死後 권력을 장악해야 할 江澤民의 입장에서 볼 때, 北京派는 달갑지 존재였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上海派 혹은 同調 勢力圈내 인물의 영입이 두드러질 것임.
- 江澤民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기회는 반대파 제거와 자신의 세력 기반 확대가 맞아떨어지는 셈임.
- 특히 신임 북경시 당서기로 喬石의 측근인 尉健行을 임명한 것은 同調 勢力의 權力 基盤 擴大로 분석됨.

○ 鄧小平과의 差別化 試圖

-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鄧小平 격하 운동으로 보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성급한 분석으로 사료됨.
- 과거 毛澤東 死後 鄧小平 집권 시절을 비추어 볼 때, 전임 지도자에 대한 재평가는 반드시 실시될 것임(특히 1989년 발생한 6·4 天安門 사태 관련). 과거 鄧小平은 毛澤東에 대한 평가에서 「功은 7할이고 過는 3할이다」라고 정의하여 毛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음.
- 이와같은 평가 이면에는 전임자에 대한 완전한 부정은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신의 집권에 대한 합법성이 결여되기 때문임.
- 따라서 江澤民 역시 鄧死後 개혁·개방 정책 또는 6·4 天安門 사태 등에 대해 재평가를 하겠지만 자신의 권력 기반을 해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됨.
- 홍콩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江澤民은 "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에 너무 치우쳐 부패에 관대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자신과 전임자를 차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향후 지도 이데올로기로써 文化大革命 당시 배척되었던 儒敎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조치 역시 지도 이념에 있어서 鄧小平과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地方 勢力에 對한 警告性 措置

-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이후 각 지방 정부의 경제력이 증대되었으며(특히 먼저 개방된 중국 동남부 지역의 廣東省), 이러한 경제력의 증대는 중앙 정부에 대한 발언권의 확대로 연결되어 왔음.
- 중앙 정부에 대한 지방 정부의 거부감은 개혁의 진행과 함께 더욱더 악화되어 급기야 "上有政策 下有對策"(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지방에 유리한 조치를 취한다는 뜻)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 이와같은 현상은 鄧小平 死後 강력한 카리스마의 부족으로 획기적인 조치가 실시되지 않는 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음.
- 이번 조치에서 북경시 고위층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정책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북경시측의 행동과 이들이 北京派의 주요 인사들이라는 점에 기인함.
- 따라서 중앙 정부가 북경시를 주요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중앙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발이 심했던 지방 세력에 대한 일종의 「警告性 措置」로 볼 수 있음.

3. 現存 黨內 主要 派閥 分析

○ (派閥 分類 基準)중국 공산당내 인맥을 파악하려면, 우선 「國家 觀念」보다는 「地域 觀念」을, 「地域 觀念」보다는 「血緣 觀念」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속성을 파악·적용해야 할 것임.
○ (派閥 現況)현재 당내 최대 파벌은 上海派와 山東派이며, 이외에 北京派, 分權改革派 등이 있음.
○ (派閥의 屬性)과거 당내 파벌은 노선 투쟁을 내세운 권력 투쟁의 주체가 되어왔음. 일반적으로 파벌의 지도자와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추종(client)과 보호(patron)라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

○ 江澤民 中心의 上海派

- 上海派는 지역적으로 상해를 중심으로 인접한 浙江省, 江蘇省이 포함됨.
- 上海派의 구성은 주로 江澤民이 시장, 당서기를 역임한 적이 있는 상해시 근무 연고자, 江澤民의 고향인 江蘇省 揚州 일대와 上海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연고자 및 1930년대 江澤民과 같이 上海에서 중국 공산당 지하 활동에 가담한 경력 연고자로 이루어져 있음.

<표1> 上海派의 主要 人物

姓 名	年齡	現 職 責	備考(江澤民과의 關係)
江澤民	69	黨總西紀, 黨中央軍事委員會主席 國家主席	-상해파의 중심 인물
喬 石	71	全人大 常務委員長	-경력 연고자
朱鎔基	67	副總理	-근무 연고자
李嵐淸	63	副總理	-지역 연고자
錢其琛	67	副總理	-경력 연고자
丁關根	66	당중앙선전부장	-지역 연고자
吳邦國	54	부총리	-근무 연고자(前상해시 당서기)
黃 菊	57	상해시 당서기	-근무 연고자(前상해 시장)
朱 良	71	全人大 常務委員	-경력 연고자
李淑錚	66	당대외연락부 부장	-경력 연고자
徐匡迪	58	상해 시장	-근무 연고자

- 현재 정권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정치적인 입지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이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여러가지 요인중 상해 지역의 중대되고 있는 경제력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元老·李鵬 中心의 北京派

- 조직별로는 대체적으로 北京市와 國務院 관리들이 이에 속함.
- 보수 성향의 파벌로 세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보수 元老들의 사망으로 인해 후견 세력의 감소
  - 1989년 6·4 天安門 사태와 관련, 李鵬에 대한 일반 인민들의 부정적인 태도
  - 李鵬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절하(周恩來의 양자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인맥을 통해 출세한 사람으로 평가 함).
- 이번 제거된 북경시 관계자들도 당내 파벌 성향상 이에 속함.
- 北京派의 구성은 元老級으로 彭眞, 萬里, 薄一波, 宋平, 李鐵英 등이 있으며, 현직으로는 李鵬, 陳希同을 위시한 國務院, 北京市 정부내 주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 北京派에는 山東派 인물들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표2> 北京派의 主要 人物

姓 名	年齡	現 職 責	비 고
薄一波	88	無	-8大 元老중 1인
彭 眞	93	無	-8大 元老중 1인
萬 里	79	無	-鄧小平의 측근, 상당한 권위 보유
宋 平	78	無	-元老級
李 鵬	67	國務院 總理, 政治局 常務委員	-黨內·外 낮은 지지도
李鐵英	59	黨中央政治局委員	-12인의 政治局委員중 1인
陳希同	65	前 北京市 黨書記	-최근 숙청됨

○ 喬石, 李瑞環 中心의 「分權改革派」

- 上海派가 등장함으로써 직·간접 피해를 입게될 지방(廣東, 四川, 天津 등)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喬石은 지방 순시중 개혁을 독려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려는 중앙 정부와 상치되는 입장에 있는 지방 세력(안정보다는 지속적인 개혁을 원함)의 지지를 받고 있음.

- 全人大(喬石)와 政治協商會議(李瑞環)를 통한 당내 민주화라는 명목아래 이들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 지난 全人大에서 두명의 신임 副總理에 대한 임명안에 있어서 특히 姜春雲의 경우는 전체 투표자의 63% 지지라는 매우 낮은 지지율을 기록함.
  - 이러한 투표 결과는 全人大 常務委員長인 喬石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여 현재 당내 공식 서열 3위인 喬石의 정치적 발언권이 全人大의 민주화라는 명분아래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현재 이들은 江澤民의 上海派와 협력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최근 喬石系 인물인 尉健行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들은 上海·北京 兩派간에 조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내 투쟁이 격화될수록 이들의 주가는 보다 상승할 것임.

○ 軍部 中心의 山東派

- 上海派와 함께 중국 공산당내 최대 파벌임. 山東派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당내 권력 기반이 안정되어 있음.
- 군부를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 山東派는 중국 공산당내 각 파벌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山東派는 上海派와 北京派에 동시에 교감이 있는 것을 알려짐. 다시말해서 파벌의 성향은 北京派에 가까우나, 정치적인 행동은 上海派와 함께 한다고 판단됨,
- 山東派과 軍部
  - 산동방이 무시못할 정치 세력으로 최대의 이유는 1,500여명의 중국군 장성중 1/3을 山東省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임.
  - 특히 중국의 권력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최고 계급인 上將 29명 가운데 무려 34%에 해당하는 1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中將 또한 40여명에 달해 군부내의 최강 파워를 과시하고 있음.
  - 실제로 山東派의 생성 원천이 된 山東 군벌은 지난 40년대말 國共 내전시기에 鄧小平의 제2 야전군과 陳毅의 제3 야전군이 산동 일대에 장기간 주둔하면서 현지 청년들을 대거 입대시켰는데 최근 이들이 중국군의 수뇌부를 장

악하면서 부상함.

· 山東 출신의 군부 인물들은 현재(1994) 연로한 劉華淸-張震 黨中央軍事委員會 副主席을 대신해 사실상 군부를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따라서 중국 공산당내 권력 투쟁의 향방은 이들 山東派의 움직임을 주목해야만이 정확이 볼 수 있음.
- 그동안 鄧小平이 上海派의 견제 세력으로 山東派를 키워온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음.

<표3> 山東派의 主要 人物

姓 名	年齡	現 職 責	備 考
萬 里	79	無	-鄧小平의 측근, 元老級
谷 牧	81	無	-元老級
宋 平	78	無	-元老級
胡錦濤	53	政治局 常務委員중 1인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되고 있음
田紀雲	66	全人大 常務委員會 副委員長	-12인의 黨中央政治局委員 1인
姜春運	65	副總理	-최근 부총리로 발탁됨
張全景	64	黨組織部長	-胡錦濤의 도움을 받고 있음
羅 干	60	國務院 秘書長	
宋 健	64	國家科學技術委員會 主任	
李其炎	57	北京市長	-薄一波가 뒤를 밀고 있음
高德占	63	天津市 黨書記	

<표4> 山東 出身 主要 軍部 人物

姓 名	年齡	現 職 責	備考(계급)
遲浩田	66	國防部長	-상장
王瑞林	66	總政治部 主任	-상장, 鄧小平의 비서실장
張萬年	67	總參謀長	-상장
李 景	65	副總參謀長	-상장
張連忠	64	海軍 司令員(사령관)	-상장
李來柱	63	北京軍區 司令員	-상장
張太恒	64	濟南軍區 司令員	-상장
宋淸渭	66	濟南軍區 政治委員	-상장
李文卿	65	國防大學 政治委員	-상장
王太嵐	65	總後勤部 副主任	-상장

4. 政治 情勢 展望

○ (評價)앞서 언급한 각종 사건은 결국 鄧死後 안정된 후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일환이며, 당지도층의 공감대(혹은 묵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留意事項)최근 江澤民에 의한 일련의 조치를 鄧小平 격하 운동 또는 당내 권력 투쟁의 본격화라고 보는 언론의 시각은 성급한 분석임.
○ (展望)향후 중국 공산당내 保守派 혹은 改革派와 같은 구분은 점차 그 의미가 줄어들고 地域에 根據한 派閥이 浮刻될 것임.

○ 評價

- 즉, 중국은 지금 鄧死後 후계 체제를 대비한 새로운 권력 배분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鄧死後 후계체제를 겨냥한 사전 포석의 의미를 띠고 있음.
- 현재 鄧의 후계자인 江澤民은 비록 黨·政·軍을 공식적으로 장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기반이 약하다는 결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하나로 부정부패 일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임.
- 물론 그 대상은 자신과 반대 입장에 있는 北京派 및 元老들과 전·현직 고위층의 자제들로 구성된 "太子黨"으로, 江澤民은 부정부패 문제를 권력 강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太子黨"은 당에 대한 기여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친의 권력에 의존, 富와 權力을 잡은 경우이므로, 그들에 대한 처벌은 부패 일소라는 명분과 元老들의 정치적 입지 하락을 통한 권력 확보이라는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조치로 보임.
- 중요한 점은 가히 무모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江澤民의 최근 조치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반론의 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그 이유는 증거가 명백한 탐관오리를 제거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서있기 때문임.
- 결국 江澤民 總書記는 현재 중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의 해결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반대파를 숙청하는 一石二鳥를 노리는 전략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인 심각한 부패 문제는 주로 관리들과 그

들과 관련된 사람들(특히 고위직의 자제들인 太子黨)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일반 인민들의 불만을 야기시켜 왔음.

- 따라서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경우, 이로 인해 획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부수적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즉, 당내 자신의 권력 기반 확충은 물론이고 차기 지도자로서 참신하고 강력한 이미지 구축이라는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그동안 중앙 정부의 정책에 잘 따르지 않았던 북경시에 대한 이번 조치는 중앙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정부에 대해 일종의 시위로 시범 케이스의 의미도 띠고 있음.
- 최근 江澤民의 조치를 鄧小平 격하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중국의 政治文化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성급한 분석으로 사료됨.
- 아울러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鄧小平의 자녀를 비롯한 일부 핵심 "太子黨"에 대한 처벌은 元老들의 견제와 중요 元老의 자녀라는 이유로 인하여 유보되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최근 들어 反부패 운동에 대한 절제의 지시가 내려진 것은 반대파에 의한 견제가 만만치 않음을 나타내는 현상임.
- 또한 江澤民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자신의 권력 기반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음.

○ 展望

- 앞으로 중국 공산당 내부 권력 동향을 분석할 때, 과거와 같이 保守派 혹은 改革派로의 구분은 그 의미가 줄어들고 지역에 근거한 파벌의 의미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鄧死後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의 부재로 인한 당내 결집력 결여
  - 地方分權化 가속와 지방 세력의 경제력 확대에 따른 정치적인 발언권 제고
- 최근 발생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江澤民의 권력 기반은 더욱 공고해지는 것은 사실임. 특히 금년 7월에 개최될 "中國共産黨 제14기 中央委員會 제5차 全體會議"(제14기 5中全會)를 전후한 인사 개편을 통해 江澤民의 지위는 더욱 확고히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이와 같은 江澤民의 위상 강화와 정비례하여 견제 세력, 예를 들어 山東派, 北京派의 잠재된 견제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1997년 이전 중국 공산당 제15차 黨大會(15大)를 앞두고 있는 향후 2년 동안은 당내 주도권 쟁탈전이 물밑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5. 示唆點 및 對應 方向

○ (影響)최근 사건으로 우리 기업의 對中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무분별한 일부 언론의 영향으로 기업의 심리적인 위축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人脈의 活用 方案)한 파벌과의 관계에만 치중하지 말고 各 派閥 및 地域別로 多角的인 人脈 管理가 필요함.
○ (對應 方案)향후 중국의 경제 질서 확립 추세에 대비, 기업의 對中 활동도 점차 "正常的인 節次"를 主로 하고 "人脈 活用"을 副로 하는 접근 전략을 구사해야 함.

○ 우리 企業에 對한 影響

- 최근 중국내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의 對中 활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다만 심리적인 위축이 투자나 교역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음. 물론 이러한 위축은 대부분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에 기인함.
- 실제로 관련 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한 4월 중순부터 對中 수출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진행·계획중인 투자 역시 관망 상태로 들어감.

○ 對應 方案

- 이에 따라 對中 투자와 교역과 관련된 우리 기업들은 인맥 관리 차원에서 권력의 동태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동안 한국 기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중국측 인사, 예를 들어 최근 숙청 대상이었던 張百發 北京市 常務副市長 혹은 일부 "太子黨"과 연계를 맺어온 일부 기업에 간접적인 영향 혹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
- 어느 한 파벌이 득세한다고 해서 그 파벌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각 파벌과의 다각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각 지역별 주요 파벌(上海, 北京, 山東, 廣東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다각적인 인맥 관리가 필요함. 아울러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上海派: 향후 중국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할 파벌로, 특히 중앙 정부 차원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체와 상해, 長江 지역에 진출하는 업체는 이들에 대

해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야 함.

- 北京派: 일부 元老들을 위시하여 보수 성향을 띤 인물들로 구성되어 장차 정치적인 입지는 점차 축소되어 갈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여전히 실권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파벌내의 결집력을 볼 때,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권력 변동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함.
- 山東派: 군부에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내 권력 투쟁이 격화될 경우 케스팅 보트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山東 人脈과의 연계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 廣東派: 경제적인 측면에서 上海派와 상치된 입장을 띤 파벌로 인적인 측면에서 가장 약하나, 향후 華南經濟圈의 중심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인맥 관리가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지도자의 강력한 카리스마 부족과 地方分權化 현상의 가속화로 인하여 圈域別 經濟圈이 구체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圈域別 人脈이 형성되고 해당 지역내 그들의 영향력이 크지는 시기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
  - 이와같은 구분은 해당 지역의 경제력과 발전 가능성이 정치적인 발언권과 연계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음.
- 따라서 어느 한 파벌에 집중되는 것보다 다양한 인맥 관리가 필요하며, 앞으로는 각 圈域別 人脈 管理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우려야 함.
  - 예를 들어 北京·天津·大連 등의 북부권과 上海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廣州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과 같이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圈域別 人脈 管理도 중앙 정부와의 연계가 항상 이루어져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아울러 향후 중국 내부 경제 질서 확립 추세에 대비, 우리 기업의 對中 활동도 점차 "正常的인 節次"를 主로 하고, "人脈 活用"을 副로 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임.

(金丁均)

<附錄1> 最近 事件 發生 日誌

발생 일시	사건 내용	비고
2.16	北京 首都鋼鐵公司의 周冠五 퇴임 조치	-鄧小平과 절친했던 사이로 首都鋼鐵의 이사장겸 총서기 -중국 철강 업계의 대부
2.17	周冠五의 아들 周北方 체포	-首都鋼鐵의 홍콩 계열사인 首長關聯社들과 연계되어 대외 업무를 관장해 옴 -鄧小平의 아들 鄧質方과 함께 사업
3.5 -18	제8기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제3차 회의 개최	-당내 안정과 단결 강조 -안정 위주의 성장 정책 채택 -吳邦國(상해파)와 姜春雲(산동파)를 각각 공업, 농업 담당 부총리로 임명
3. 7	홍콩의 星島日報가 陳希同(북경시 당서기), 李其炎(북경시장), 張百發(상무부시장) 등과 같은 고위 관리들의 전·현직 비서 20여명이 부패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	-기본적으로는 중앙 정부와 북경시 정부간의 갈등 표출 -구체적으로는 북경시 고위층의 부패와 연계되어 있음
4. 6	王寶森 북경시 부시장 자살	-市計劃委員會 主任으로 재정을 담당「財神」으로 불려졌음 -특히 陳希同 시당서기와 끈끈한 관계를 구축,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옴 -북경시 경제 비리는 공개된 비밀이었음
4.10	8대 元老중 1人인 陳雲(90)의 사망	-8대 원로중 보수파의 거두로 鄧小平과 쌍벽을 이루었음. -경제는 어디까지나 계획의 틀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鳥籠經濟論」의 창시자 -그의 사망으로 보수파의 입김 약화 전망
4.25	楊尙昆의 군부 인사 접촉에 대해 江澤民의 자제 요청	-과거 8대 원로중 1人, 鄧小平의 측근 -楊尙昆은 아직 군부에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음
4.28	陳希同 북경시 당서기 전격숙청 발표	-지난 25일 이후 가택 연금 상태 -비상 경계령 하달
5. 1	劉正威 前 貴州省 당서기 자살 관련 보도	-文化大革命 이후 자살한 최고위 관리 -수일뒤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5. 1	陳小同 북경 뉴센추럴 호텔 사장 연행 발표	-陳希同 북경시 당서기의 아들 -국내외 대형 건설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2천만元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로 연행됨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제로 周北方에 이어 두번째로 부패 혐의로 체포됨

5. 4	鄧小平 차남 鄧質方에 대한 비리 조사 보도	-현재 홍콩 首都鋼鐵協和 그룹 사장 및 上海四方 부동산 사장 -이미 구속된 首都鐵鋼의 周冠友·周北方 부자와 밀접한 관계 -북경시가 중앙 정부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주어 문제가 된 "東方廣場" 신축건과도 관여되어 있음.
5. 5	首都鐵鋼 그룹 간부 2명 사형 선고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1월 사형 선고를 받음
5. 5	鄧小平의 딸 鄧榕의 저서 「나의 아버지 鄧小平」 再版 금지 검토	-그동안 중앙 정부의 고위층은 鄧小平의 자녀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면서 야기시키는 파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해 왔음
5. 5	鄧質方 비리수사에 대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부인	-鄧小平의 아들이 수사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점을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로 판단됨
5. 8	중국군 1급 戰備 태세	-6월 4일 6·4 천안문 사태 및 당내 권력 동향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됨
5. 9	황병태 주중 대사의 발언	-현재 중국 내부의 사정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같이 심각한 권력 투쟁이 아님을 밝힘
5.10	군부내 反江澤民 세력에 대한 중징계 시사	-과거 군부의 실력자 楊尙昆의 최근 활동에 대한 경고 조치와 연계되어 있음
5.10	외국 언론에 부패 추방이 권력 투쟁으로 보도됨에 당 혹감 표명	-대내·외적인 부작용을 고려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을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짐.
5.11	鄧小平 조카딸 횡령 혐의 조사	-鄧의 남동생인 鄧墾의 딸 -深圳 파운틴社의 자본 1억 7천만元 유용 혐의
5.11	中 원로 江澤民 정책 비난	-薄一波, 楊尙昆, 萬里 등 원로들이 江澤民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 -趙紫陽은 최근 廣東省을 방문함
5.17	反부패운동 절제 지시	-局長級 이상 간부에 대한 조사는 사전 당승인 획득을 명문화 -외국 기업의 투자 열의 저해 우려와 반대 세력의 견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5.20	中 深圳 관리 70명 체포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부패 조사반에 의한 조치 -체포 대상은 주로 深圳市의 黨·政 고위 관리들임

주: 표에서 밝힌 일시 및 내용은 국내 신문 보도를 기준으로 한 것임.

<附錄2> 中國內 "太子黨"의 實體

1. 範圍

- 중국 공산당 元老 혹은 전·현직 주요 고위층의 자제로서 자신의 아버지 혹은 장인의 후광을 업고 黨·政·軍·經의 주요 직책에 진출해 있는 인원들을 가리킴.

2. 人員數 및 主要 據點

- 현재 중국내 활동중인 "太子黨"의 수는 약 3000 - 5000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은 정부의 각 부처와 주요 기업의 핵심 포스트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음.
- 홍콩의 월간지 爭鳴誌에 따르면 政府 및 軍要職에 3100 명, 大型 貿易會社에 최소한 900명 정도가 각각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性向 및 役割

- 이들은 대체로 아버지의 후광을 배경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지만,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엘리트이기도 함.
- 넉넉한 재력 덕분에 이들중 상당수는 서구에서 대학을 나왔으며, 따라서 사고도 국제적이며 행동 반경도 넓은 편임.
- 이들은 정치적인 성향은 대체적으로 중립적임. 이는 어린 시절 겪었던 문화대혁명의 악몽 때문임. 즉 그들은 거의 예외없이 정치적인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관계로 정치에 무관심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지난 1989년 6·4 天安門 사태 당시 족벌과 부패의 상징으로 비판받았던 "太子黨"이 지금까지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데에는 집안의 배경이외에도 그들의 국제적인 감각이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들은 「社會主義 市場經濟」에 익숙하지 않은 서방 투자가들 사이에서 공인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방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과의 친분 관계가 곧 對중국 사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핀이 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홍콩이나 대만 기업과는 달리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해 사업의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신임하는 경우가 있음.

<표> 主要 "太子黨" 現況

주요인물		자녀(太子黨)	現 주요 직책	비 고
원로급	鄧小平	장남 鄧樸方	중국 장애자 협회 회장	-맏사위 吳建常(중국유색금속 수출입공사 부사장)
		차남 鄧質方	홍콩 首都鋼鐵 協和그룹사장	
		장녀 鄧 林	國際友誼促進會 부이사장	-둘째사위 張宏(科學院 科技開發局長)
		차녀 鄧 南	국가과학위 주임	
		삼녀 鄧 榕	등소평 개인비서	-셋째사위 賀平(前 保利그룹 사장)
	陳 雲 (死)	장남 陳 元	중국인민은행 부행장	-陳元은 朱鎔基와 독대가 가능한 경제통임
		장녀 陳偉蘭	당중앙조직부 청년간부국장	
		삼녀 陳偉力	중국신기술창업공사 부사장	
	王 震 (死)	장남 王 軍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 (CITIC) 본사 사장	-深圳를 주무대로 하고 있음 -과거 王震이 사망전 자식들을 榮毅仁에게 부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兩家의 관계)
		차남 王 兵	深圳南海石油公司 회장	
		삼남 王 之	長城컴퓨터 사장	
	薄一波	장남 薄熙來	大連 시장	-사위 鄭燿文은 外交部 아프리카 담당 국장
		차남 薄熙成	루허싱社 사장	
		삼남 薄熙永	前 중국자동차공업회장	
	楊尙昆	장남 楊紹軍	국방과학위원회산하연구소장	-삼촌 楊白冰(楊尙昆의 이복동생)과 楊尙昆은 군부내에 지지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차남 楊紹明	鄧小平의 공식 수행원	
		장녀 楊小朝	前 保利그룹 사장	
	彭 眞 (死)	장남 傅 鋭	廣東省委 조직부장	-彭眞은 모두 4남 1녀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삼남 傅 洋	前康華總公司法律자문부책임	
		장녀 傅 彦	富利公司 회장	
	葉劍英 (死)	장남 葉選平	前廣東省長, 全國政協副主席	-현 國務院 副總理 鄭家華는 사위 -며느리 吳小蘭은 深圳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副主任
		차남 葉選寧	總政治部聯絡部 主任	
		삼남 葉選廉	保利公司 책임자중 1인	
		장녀 葉楚梅	前國防科工委員會 副主任	
前·現職고위층	榮毅仁	장남 榮智健	홍콩 CITIC 사장	-榮氏 집안은 원래 민족자산계급 출신으로 공산당 집권 이전부터 상당한 재산가였으며, 지금도 중국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CITIC는 홍콩 케세이퍼시픽과 홍콩텔리컴 지분을 갖고 있는 대기업 -개인 재산만 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喬冠華	장남 喬宗淮	평양 주재 중국 대사	-喬冠華는 외교부장을 역임한 적이 있음
	趙紫陽	장남 梁一北 장녀 趙雁南	前마카오 新華社 分社 부총서기 北京 쉐라톤 長城호텔 부사장	
	李 鵬	장남 李小鵬 장녀 李小琳	華能國際電力發電公司 부사장 電力部 국제협력국 부국장	-李鵬 본인도 周恩來의 양자로 1세대 태자당임

주: 彭眞의 原名은 傅懋功임.